

시사저널

미주판

No.29 2018.7.1

龍山夢

단독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 뜬다

인터뷰 송 리차드슨 UC어바인 법대 학장

"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은 법학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ISSN 1228-405X



29

\$5.00

9 771228 405007

미국 LA=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250년의 미국 역사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던 흑백갈등, 라티노와 아시안들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위들은 21세기의 미국에서도 여전히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인종적인 편견에 관한 법학자로 명성을 쌓아왔으며, 미국 내 톱 30위 안에 드는 법대 가운데 최초의 소수계 여성 학장인 UC어바인 법대의 송 리차드슨 학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송 리차드슨

“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은 법학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터뷰 송 리차드슨 UC어바인 법대 학장

소수계 여성으로는 처음입니다. 전국 랭킹 30위 안에 드는 UCI 법대의 학장으로서의 소감은.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대의 학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신 인생의 많은 멘토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은 저의 한국인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UCI 법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법대를 또 세우냐, 필요없다 했지만 우리는 다른 분위기의 법대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법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UCI 법대에 모인 교수, 교직원,

학생들도 모두 같은 비전이 있었죠. 우리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을 위해 커뮤니티에 다시 돌려주는 변호사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학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린 이 모든 걸 다 해했습니다. 처음으로 법대 랭킹 21위에 오르면서 말이죠.”

학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미래의 법 교육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창안하고, 구상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가 기술업계의 애 플처럼 되는 거죠. 사람들이 UCI 법대를

보고 미래의 법과 법 교육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 Erwin Chemerinski 학장은 공익과 사회 정의 관련 법에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도 이어가지만 저는 민간부문 관련 법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미 전역의 로펌들, 기업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법률 직업들도 바뀌고 있고 변호사들도 이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흔히 상상하는 근엄하고 경직된 법대 교수의 이미지가 아니라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따뜻한 학장님의 스타일이 학교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엄하셨지만 항상 웃음과 유머가 있으셨어요. 이걸 제가 UCI 법대에서 형성하고 싶은 분위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는 친절하고, 협력적이고, 잘 도와주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법대들은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죠. 제가 다녔던 예일 법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친절하고 협력적인 것이 좋아도 자신이 믿고 있는 명분과 이상을 위해 싸우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는 똑바로 말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리차드슨 학장은 육군 중령으로 은퇴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어머니라고 말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4살 때부터 대학에 갈 때

까지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4시간 이상, 주말에는 8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대학에 가서야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의 많은 엄청난 기회들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꿈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더 일찍 UCI 법대 학장이 되었다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늘 저를 강하게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두 남동생은 MIT와 하버드를 다녔고 하버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일 법대에 갔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꿈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더 일찍 UCI 법대 학장이 되었다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늘 저를 강하게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저에게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생을 조금은 즐기라고요. 지금도 엄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피아노를 연습하기 싫었고, 나가서 놀고, 파티도 가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서 당시에는 그걸 못 하게 하는 엄마에게 화가 났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한인과 흑인가정에서 자란 것이 인생에 어떤 영

향을 주셨습니까.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와 사회가 아직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도 저희 같은 다민족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차별당하는 것도 봤고, 어머니는 발음 때문에, 아버지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자란 것이 변호사가 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어려움이 저의 커리어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부모님이 여러 역경을 헤쳐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에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느 법을 공부하든지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아드에도 합격할 정도로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왜 음악을 포기하고 하버드에 갔는지, 그리고 예일 법대 졸업 후에 변호사를 하다가 교수의 길을 택한 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아노에 너더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택했죠. 이제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네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회 정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차별받는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민변호사를 했고, 관선변호사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평등권이 보장되기 참 어려운 영역이 많아서, 제가 법



2018년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리차드슨 학장

을 시작했던 이유였던 만큼 이와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한 케이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도 그 사건에 대한 ‘컨페션 테이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2년이나 걸린 케이스가 끝나고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다른 학교에 있던 친구가 한 학기 정도 학생들을 가르칠 의사가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 어린 어른들(young adults)을 성장시키는 것, 학생들의 법에 대한 생각과 커리어 결정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자체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인종적인 편견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전 항상 형사법제도 안의 인종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데, 좋은 사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죠. 무의식적 인종차별에 대해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다르게 대하거나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중국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투고박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은 여기 웨이터가 아니고 식사하러 온 손님이라고 말하더군요. 중국식당 안에서

중국인처럼 생겼다는 것만으로 거기서 일하는 웨이터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판단을 했던 거죠. 생각하지 않고 제 본능을 통해 곧바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일반 사람도 이런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무의식적 인종차별과 그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에 저의 열정이 있습니다.”

UCI 법대 학장이 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UCI 법대가 다른 법대와 차별화되는 점은.

“저와 같은 유색인종 여성이 학장이 된 것만 봐도 UCI 법대가 다른 학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행동하고, 혁신적이고, 모험적이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학교들의 오랜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점 때문에 혁신을 하기란 정말 힘들죠. 하지만 저희 학교는 새로 시작한 법대이기 때문에 혁신적 사고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런 특별한 마음으로 저희 학교의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은 당시 랭킹에도 없는 학교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중이고, 미래를 생각하며 좋은 교수들을 더 임용해서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 학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Korea Law Center를 비롯해 UCI 법대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일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Summer Kim 교수가 디렉터로 있는 Korea Law Center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 학장으로 서울대 법대를 방문해서 교수진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의 대법원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저희 교수 한 분이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2년 안에 고려대 법대, 서울대 법대와외의 컨퍼런스를 저희 학교에서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법대생들이 UCI 법대의 LLM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국어 수업을 받아서 다음에는 한국말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CI뿐만 아니라 법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생각이 본인에게 동기부여를 준다면 법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관선 변호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지 어떤 법 분야든지 상관없이 커뮤니티에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고려한다면 법대 진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법대에 진학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UCI 법대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특별한 곳이니깐요.”